



大韓民國 國家 獎學金에 關한 小考

洪, 成泰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Issue Date)

2020-11-09

(Resource Type)

research repor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470>



大韓民國 國家 獎學金에 關한 小考

A Study on National Scholarship of Korea

祥明大學校 洪 成 泰 教授

I. 序論

大韓民國 高等教育法 第28條는, '大學은 人格을 陶冶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發展에 필요한 深奧한 學術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가르치고 研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國民이 高等教育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國家나 社會에서 어떤 形態로든 支援해줘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學業을 拋棄해야 하는 學生에게는 國家의 支援은 반드시 必要하다고 하겠다. 世界 各國의 政府나 機關, 企業 및 個人이 어려운 가운데 學業을 하고자 하는 學生이나 大學을 위해서 獎學金 혹은 寄附金 名目으로 巨金을 快擲하는 것도 이런 大學의 存在 理由를 念頭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大韓民國의 經濟政策은 巨視經濟를 安定的으로 管理하는 가운데, 일자리 創出 및 民生을 安定시키고, 四次 産業革命, 低出產·高齡化 등 經濟社會의 根本的 變化에 對備하고 있다. 經濟政策 중에서 青年을 支援하는 分野에는 就業, 創業, 福祉 등이 있는데, 大韓民國의 國家獎學金은 經濟政策 중 福祉의 分野에 속하며, 國家의 人材 管理의 側面에서도 매우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다.

各國의 有名 獎學金으로는 1902년부터 始作하여 100년 이상의 歷史를 자랑하는 영국의 로즈 獎學金, 미국의 Fulbright 獎學金, 일본의 문부과학성 초청 獎學金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종의 미국 國家獎學金(Fulbright Program)은 미국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거나 해외학생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는데 필요한 경비를 後援하는 文化交流프로그램으로서 미국 大學 立場에서는 Fulbright Program의 獎學金을 받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좋은 評價를 받는다. 한편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인 70년대에 우수한 과학기술 人재를 양성하고자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소정의 節次를 거쳐 고급인재를 國費 獎學生으로 選拔하여 經濟的 支援을 해왔다. 2012년부터 韓國에서는 國家獎學金을 제도화하여 大學의 評價 等級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學生들에게 國家獎學金을 支給하는

先進的 制度를 運營하여 누구나 經濟的 形편에 상관없이 高等教育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誕生하여 發展해온 韓國의 國家獎學金의 內容, 特質 및 性格에 대해서 考察해보고자 한다. 國家獎學金의 必要性 및 運用에 대해서는 이미 行政的, 政策的, 教育的 내지는 社會的 觀點에서 많은 論議와 研究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觀點을 바꿔 經營學 내지는 經濟的 觀點에서의 含意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內容과 敍述은 인터넷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確認한 資料를 參考한 個人的인 생각과 견해로서 學問的 혹은 理論的 土臺에 基盤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¹

II. 國家獎學金의 種類과 意義

大韓民國 教育部의 大學情報 公示에 따르면 2020년 연간 負擔해야하는 平均 登錄金은 韓貨 6,726,600원으로, 私立大學이 7,479,800원, 國公立大는 4,18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大學에 다니고자 持出하는 大學登錄金은 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登錄金を 낼 수 없는 어려운 經濟적 形편에 있는 학생에게는 그 負擔은 더욱 加重될 것이다. 國家獎學金은 財産과 所得이 一定 水準 以下인 大學生에게 大學 登錄金を 支援함으로써 經濟的·精神的 負擔을 줄여주고, 學業에만 充實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役割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國家 獎學金은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학생의 經濟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大學生이라면 누구나 高等教育의 惠澤을 누릴 수 있는 制度로서 國家 獎學金 I·II 類型과 多子女(세 자녀 이상) 獎學金, 地域人材 獎學金이 있다. 한국의 教育部는 學費 調達이 어렵고 우수한 大學生의 登錄金 負擔 緩和를 위한 支援 計劃 樹立 및 豫算 確保 등 國家獎學金 사업 總括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며, 韓國獎學財團은 대한민국 教育部로부터 國家獎學金 事業의 管理 및 運營을 委託 받아 業務를 遂行하며, 支援되는 獎學金은 國稅로 財源이 調達된다.

¹ 이 글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과 韓國國家獎學財團(www.kosaf.go.kr) 등과 같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인터넷 資料를 參考하여 作成되었음을 밝힙니다.

國家獎學金 I·II 類型은 經濟的 與件과 關係없이 能力과 依支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高等敎育의 惠澤을 누릴 수 있고, 다자녀 獎學金은 다자녀 家구에 대한 大學 敎育費 負擔을 輕減하며 다자녀 家구에 대한 社會的 優待 雰圍氣를 助成하는데 目的이 있다. 지역 人재獎學金은 지역大學의 우수인재 및 未來人材 養成을 위해 支援되고 있다. 選拔된 受惠 학생들에게 支援되는 獎學金의 支援 形態는 現物인 現金으로 傳達되며, 申請 후 獎學金을 수령하기까지는 11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제 韓國獎學財團에서 提供하는 여러 國家獎學金의 類型을 簡略히 살펴보겠다.

1. 國家獎學金 I 類型

I 유형의 支援대상은 大韓民國 國籍者로서 國內 大學에 재학하고 학자금 支援 8구간 이하(기존 中位所得 200% 이하)이며 일정 成績 基準을 滿足하는 大學生이며, 大學構造調整 評價 結果 E 等級 大學의 신·편입생은 支援대상에서 除外된다. 충족되어야 하는 成績 基準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이며, 기초 차상 위계층의 경우는 C학점 이상,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適用 成績이 70점-80점 미만의 경우는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成績 및 이수학점 基準이 적용되지 않고, 障礙大學生의 경우는 成績이 適用되지 않는다. 獎學金의 支援 內容은 國家 獎學金 I 유형은 所得 分位別 定額 差等 支援으로 基礎生活 受給者와 次上位 階層은 年間 韓貨 520만원, 1-8 구간은 年間 韓貨로 520만원부터 67.5만원 까지이다.

2. 國家獎學金 II 類型

II 유형의 支援 對象은 大學 自體의 支援 基準으로 支援하며, 基礎-3 區間은 우선 支援이 可能하다. 단, 大學構造改革評價 結果에 따른 D, E 等級 大學 및 評價 未參與 大學의 신·편입생은 支援 對象에서 除外된다. 障礙人, 大學生 子女가 2명 이상인 家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家구의 학생, 긴급 經濟 事情 困難者와 先 就業 後 進學 學生의 優待支援을 勸告한다. 支援金額은 大學자체 基準에 따라 登錄金 必須經費(入學金, 授業料) 範圍 내에서 支援金額이 결정된다. 國家獎學金 II 유형은 기초 3구간까지는 우선 支援하되 大學에서 自體 基準을 마련하여 選拔 支援한다.

3. 多子女 類型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은 大韓民國 國籍者로서 國內 大學에 在學 중인 多子女 家口의 大學生으로 學資金 支援 8구간 이하에 해당된다. 단, 大學構造改革評價 結果 E 等級

大學의 新·編入生은 支援 對象에서 除外된다. 成績 基準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履修者로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基礎·次上位 階層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학자금 支援 1-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成績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受惠가 가능하고, 新·編入生은 첫 學期에 한하여 成績 및 履修學點 基準이 未適用 된다. 障 碍 大學生의 경우, 國家獎學金 I·II와 마찬가지로 成績 基準이 適用되지 않는다. 세 자녀 이상 多子女 獎學金은 기초 3구간까지는 520만원을 支援하고, 登錄金 範圍 내에서 年間 450만원을 支援한다.

4. 地域人材 獎學金

地域人材獎學金은 무조건 지방에 있는 高等學校를 졸업한 후, 지방에 있는 大學校에 進學해야만 選拔 對象이 되고, 그 밖에 내신과 修學能力試驗 成績에도 최소 基準이 있다. 獎學金은 登錄金 全額을 支援한다. 獎學金을 받고자 하는 大學生의 所屬 大學의 擔當 部署에서 獎學生 選拔 基準과 많은 情報를 具備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大韓民國의 國家獎學金은 2012년 처음 실시할 때에 비해 많이 擴大되고 있으며 申請 節次도 점점 簡便化 되어가고 있다. 2019년 基準 103만명 학생에게 3.4조여원을 支援해왔다. 國家獎學金을 받고자 하는 I·II 支援의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申請이 可能하고 基本的인 提出書類는 없다. 그러나 國家獎學金 申請 情報와 한국장학재단에서 申請者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家族關係證明書, 基礎生活保障 受給者 證明書와 申請者 家口員의 情報提供 同意 등이 必要하다.

國家獎學生이 社會的 物議를 惹起하는 등 國家獎學金 受惠者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國家 獎學金 支援이 制限된다. 또한 과거 학기 國家獎學金을 전액 반환하여도 학적 변동과 중복支援 발생시를 제외하면 수혜 횟수가 累積된다. 또한 書類를 僞造하고 變造 등 虛僞資料 提出 시 該當者의 國家獎學金 제공을 중단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國家獎學金 制限者로 分類된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國家獎學金이 條件을 充足시키고 있는 適格者에게 支給되어 善用되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이를 받기 위해서 道德的으로 올바르지 않은 行爲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운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 大韓民國의 國家獎學金은 여러 長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登錄金과 生活費를 마련하느라 休學을 反復해야 하고 공부를 포기해야 하

는 암담한 현실 상황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登錄金 걱정을 덜어주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登錄金 마련을 위해서 휴학,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 大學 生活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最近 大學生들은 학업 위주에서 동아리, 奉仕, 交換學生, 인턴 및 就業 準備 등과 같은 多様な 活動을 要求받고 있다. 國家獎學金은 단지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大學生이 해야 하는 다양한 學內·外 活動을 할 수 있게 하여 充實하고 全人的인 大學 教育 및 生活이 可能하게 된다는 것이 큰 惠澤이라 하겠다. 셋째, 학생 및 학부모에게 心理的, 情緒的인 安定感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社會 生活에서 萎縮되고 自信感을 잃게 되어 大學 教育의 기회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왔다. 넷째, 國家獎學金의 代替財라고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학업을 마친 大學生들에게 갚아야 하는 심리적·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감을 갖게 하고 가난을 대물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國家獎學金은 이러한 부담 대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며 國家와 사회를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國家獎學金은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흔히 가족 해체, 사회적 불평등, 정책의 실패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社會全體的 問題는 社會的 安定성과 國家的 繁榮 및 人類 發展을 위해서 반드시 解決되어야 하는 課題이다. 이제 社會全體的 觀點에서의 國家獎學金의 役割과 寄與點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敍述하기로 한다.

Ⅲ. 國家獎學金의 社會的 役割

父母라면 누구나 子女를 좋은 環境에서 훌륭하게 教育시키고 成長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넉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껏 支援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운 心情을 갖게 되며, 자녀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學業은 더욱 힘들어진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자녀가 학비 걱정에 꿈까지 잃으면 안된다는 부모의 절절한 안타까움과 고통 가운데 國家獎學金은 가문의 단비와 같은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는 獎學金을 받음으로써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學業을 이어 나갈 수 있어, 자신의 父母에게 孝道라는 선물을 드리기도 한다. 國家獎學金이 어찌면 깨질 수도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回復시키고, 부모의 經濟的인 役割을 國家가 代身함으로써 健康하고 幸福한 家庭 안에서 어려울지라도 학업을 이어 나가는 학생에게 肯定的인

情緒를 갖게 하여 社會에 安定感을 提供하는 役割을 한다.

國家獎學金은 成績이 우수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동안 國家獎學金을 받기 위해서는 成績이 좋아야 한다는 先入觀이 있었는데, 현재는 불우한 집안 학생의 學業 成績이 시간과 관심과 돈을 支援해주는 잘 사는 가정의 학생보다 競爭的으로 劣位에 있는 것이 現實이다. 國家 獎學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獎學金을 成績 基準이 아닌 國家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난과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拋棄하고 어렵게 準備한 學業을 拋棄해야 하는 絶望的인 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모와 사회를 탓하는 社會의 悲觀者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國家獎學金은 大學 自體에서 支援되는 大學成績 獎學金과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登錄金에 대한 걱정을 덜고, 工夫에만 集中할 수 있어서 成績을 끌어 올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더욱 키워주기도 한다. 가난이 절망이 아닌 오히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動機附與가 되고, 삶에 대해 感謝를 느낄 수 있게 하며 拋棄 대신 希望으로 自信의 目標를 향해 나갈 수 있는 原動力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제도에 대해 고마워하고 본인들이 받은 것들이 단지 物質이 아닌 精神的인 次元까지 끌어올려 사회에서 자신과 같은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과 社會的 弱者들에게 配慮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遂行하고 그 影響力으로 社會의 善循環을 이끌어 내고 있다. 國家獎學金 支援를 받은 학생들은 다가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克服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視角으로 世上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國家獎學金을 담당하고 있는 韓國獎學財團에서는 獎學生들 가운데 大學生 弘報大使를 任命한다. 이들은 國家 人材 育成支援機關인 韓國獎學財團에서 遂行하고 있는 國家獎學制度와 학자금 제도, 人材育成支援制度를 大學校 내에 弘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弘報大使는 SNS기자단, 권역리더 弘報大使, 校內 大學生 弘報大使 등으로 구성된다. 각 팀원끼리 회의안 구성과 결과물 제작, 보고서 작성의 역할을 나누어 팀 미션을 완성하고 콘텐츠 제작능력도 키우게 된다. 또한 韓國獎學財團은 獎學金뿐만 아니라 次世代 리더 育成 멘토링, 다문화 멘토링, 大學生 聯合 生活館, 푸른등대 기부금 사업, 學資金貸出 등 獎學金과 連繫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IV, 國家獎學金 關聯 考慮해야 할 事項

앞에서 論議한 大韓民國 國家獎學金과 관련되어 提起될 수 있는 주요 考慮 事項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獎學金은 平等한 教育의 機會를 提供하고 獎學金을 支援받은 學生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꾸게 한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學生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國家의 財源으로 獎學金을 누구에게나 支援하고자 하는데 意義가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教育을 받을 권리를 高等教育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민 중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만을 申請 對象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基準의 合目的性和 適切性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늦게 공부를 시작한 晚學徒들에게 닫혀 있는 나이 제한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死角地帶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受惠者의 입에 귀를 기울여 補完되고 發展된 시스템을 構築하여,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가난이라는 벽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轉向的 視角이 必要하다.

둘째, 獎學金 受惠 條件으로 比較的 어렵지 않은 學点 水準을 要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수한 학점을 받기 위해서 나날이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는 大學 環境을 고려했을 때, B 학점이라는 성과가 달성하기 수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大學 全體적으로 보아 60 % 선까지 A, B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이것도 점점 緩和되고 있어 重要的 基準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國家獎學金의 概念 自體를 國家에서 義務的으로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所得이나 學業 成果에 따라 差別的 待遇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獎學金을 받기 위한 조건이 갈수록 緩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鼓舞的인 國家獎學金 運營 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大學 評價 結果 一定 水準을 받지 못하면 新·編入 學生이 獎學 制度를 利用할 수 없다는 制約이 있다. 즉, 受惠를 받고자 하는 學生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資格 要件으로 인해 獎學金을 받고자 하는 學生이 申請을 하지 못하는 不利益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大學이 良質의 教育 서비스를 提供하도록 하려는 政府 政策의 一環이기는 하지만, 結局 所屬 大學의 評價 結果로 인하여 學生이 國家獎學金을 申請하지 못하게 된다는 누구에게나 教育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國家獎學金의 設立 趣旨와 相衝되는

側面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大學 經營의 健全성과 우수한 大學 教育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政策的 目的의 達成을 위해서 위 政策을 堅持해야 한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은 학생에게 所屬 大學은 이에 상응하는 보전을 해줘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韓國의 大學들의 財政的 與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방안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課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國家獎學金의 受惠 對象과 申請 節次가 점점 擴大되고 簡素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申請이 가능하고 구비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國家獎學金을 申請하는 고객인 학생의 입장에서 節次와 過程을 최소화하도록 措置해오고 있다는 것은 큰 進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制度的, 節次的 簡素화와 함께 申請 對象으로 資格이 없는 申請者의 發生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國家獎學金 運用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稅務情報과 같은 公共情報은 매우 잘 具備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積極 活用한다면 發生 가능한 問題中 많은 부분을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같은 현상은 인간 사회에 常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運營 및 管理를 徹底히 하는 方案을 摸索해야 것이다.

V. 國家獎學金 運營에 關한 經營學的 考察

國家獎學金과 關聯하여 國家의 政策 및 教育學的 觀點에서의 論議는 오랫동안 繼續되어 왔다. 여기서는 經營學的 觀點에서 國家獎學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考察해보고자 한다. 우선 經營學的 觀點에서는 모든 資源의 投入은 그것의 產出과 對備되어 考慮하여야 한다. 이는 原價-惠益 分析(cost-benefit analysis)이라는 方法論과 마찬가지로 論理이다. 國家獎學金의 調達 源泉은 國民의 稅金인데 이를 國家獎學金에 쓴다면 國家 豫算이 소요되는 다른 用處로 사용하지 못하는 機會費用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國家獎學金으로의 支出로 인한 效果가 다른 부분에 支出했을 때보다 投資 效果가 높아야 됨을 의미한다. 이는 財務的 觀點에서 投資收益率(ROI, Return on Investment)을 考慮해서 國家獎學金의 受惠 對象, 範圍 및 支出額을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觀點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서 다른 分科學의 많은 學者와 專門家들은 '教育'이라는 神聖한 國家의 義務이자 國民의 權利와는 쉽게 兩立되지 않는 觀點이라고 批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中等教育 이하의 義務教育에 대해서는 이런 批判이 매우 至當하고

異論의 餘地가 없다. 다만 高等教育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高等教育法 第28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大學의 目的을 考慮한다면 國家와 인류 社會의 발전에 寄與할 때 國家獎學金에의 支出이 效果가 있음을 暗示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定量的인 計量化가 아닌 定性的인 性格도 가지고 있는 教育을 이와 같이 裁斷할 수 있는가에 대한 批判은 勸收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 다음과 같은 反論을 提起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 教育의 目的은 위와 같지만 모든 大學 學位 受與者가 그런 目的을 達成하는 것은 아니라고 反駁할 수 있다. 人格 陶冶와 學問 探究가 아닌 卒業 後 보다 좋은 職場과 資格證을 따서 좋은 職業을 갖고 高所得을 얻기 위해 大學을 가는 것이 昨今の 一般的 狀況인 點을 勸索할 때 國家獎學金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根本的인 疑問을 가질 수 있다. 이는 結局 自信의 未來 利益을 創出하기 위해서 大學을 다니는데 國民 稅金으로 이를 支援 내지 補助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提起되는 疑問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 大學의 登錄金 水準이 持續적으로 上昇하고 있음에도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높은 것은 社會에서 未來를 위한 投資라고 생각하는 視角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大學이 學問研究와 眞理探究를 위한 象牙塔이라기보다는 卒業 後 未來를 擔保하는 卒業狀 및 資格證을 따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여겨진다면 國家獎學金 導入의 本來 趣旨는 많이 退色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最近 大學이 眞理探究의 道場이 아닌 商業化가 물결치는 昨今の 時流를 볼 때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全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國家獎學金에 들어가는 豫算을 中等教育 以下の 義務教育을 보다 良質化하는데 投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런 觀點이 本來의 趣旨에 맞게 열심히 學業에 精進하는 많은 獎學生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보다 本來의 目的에 맞게 충실하게 좋은 제도가 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본 斷想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國家獎學金 惠澤을 받은 한 學生은 國家獎學金을 '마중물'에 比喩하기도 했다. 펌프의 물을 끌어 올릴 때 한 바가지 정도의 마중물만 있으면 되는데,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품고 있어도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며 國家獎學金은 그 學生에게 마중물과 같은 役割을 하고 꿈을 끌어내 주었다고 한다. 그는 또 國家獎學金의 도움을 잊지 않고 社會에 나가 또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抱負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學生들의 存在가 國家獎學金의 價値를 倍加시키고 보다 더 살기 좋은 世上과 未來를 만들어줄 것으로 確信한다.